

# 原子力受難時代

徐斗煥 (韓國에너지研究所  
原子爐管理室長)

最近,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原子力關聯報道가 무척 많아졌다. 反核運動, 原電의 安全性是非, 放射能事故 및 核스캔들 등등, 거의 매일이다시피 記事化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原子力界에 從事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한마디쯤 해야 될것 같아서 몇마디 적어본다.

첫째, 이런 報道에 대하여 原子力關聯學界, 産業體 또는 研究所 이름으로 報道機關에 解明같은 記事를 投稿해야 한다고 본다. 記者들은 모두가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分野가 다르면 誤道를 낼 수 있고, 讀者도 報道內容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따라서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所信을 갖고 發言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의 原子力産業은, 初期에는 穩健한 時代가 있었지만, 지금은 世上이 변하여 原子力은 冷巖한 環境에 놓여있다. “危險하다고 느끼는 것은 無知한 탓이다”라고 간단히 結末지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왜 國民의 理解를 얻지 못했느냐하면 原子力의 安全性을 너무 지나치게 強調한데 있다. 즉 原電이 시작된 當初부터 “絶對的으로 괜찮다”라는 식으로 國民에게 PR하여 왔다고 본다. TMI事故가 일어난 후 다시 많은 改善이 있었지만 체르노빌事故가 터졌으니, 最初에 安全이라는 것을 完全無欠한 것으로 PR하였기 때문에, 지금 無理가 생겼다고 생각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여기까지는 確實하다고 明確하게, 다소 말하기 어렵더라도 숨김없이 發表하여 國民의 理解를 얻으려고 했으면 國民도 信用했을 것이다.

세째, 오늘날의 에너지 供給의 主役은 石油이지만, 아마 50여년 후에는 차츰 없어질 것이고, 開發途上國의 에너지 需要는 점점 상승할 것이다. 고갈되어가는 석유와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가 멀지않아 交差할 때, 어떤 方法을 써야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電力消費가 적었던 옛날 生活로 되돌아갈수는 없는 것이다. TV도 없고, 電氣냉장고도 세탁기도 없다. 食物은 썩기 때문에 소금조림을 먹어야 하고, 빨래판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빨래질 하고. 原電이 싫어 生活水準을 올리지말자

하여 지금의 文明社會를 否定할수는 없는 것이다. 太陽에너지 또는 다른 에너지로 電力의 供給을 確保하면 되지 않느냐고들 하지만, 經濟效率面에서 問題視되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네째, 왜 原電에만 絶對安全을 要求하는지? 이 世上에 있는 文明利器중에서 絶對安全이란 있을 수 없다. 果刀일지라도 종종 殺人凶器로 使用되고 있다. 自動車도 每年 수천명의 死亡者를 내고 있다. 人道를 걷고 있는 사람에게 自動車가 뛰어 들어 死傷者를 내는 事故도 많다. 年間 수천명의 死亡者를 내는 自動車를 타고 直接事故가 거의 없는 原子力産業에 대하여 反對데모에 參加하는 등, 自家撞着이 심하다고 본다. 체르노빌原電事故는 두드러진 異常이었다. 24時間의 테스트運轉中에 몇가지 規則을 違反하여 強行하였고, 爐設計가 異常發生時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액셀이 걸리도록 되어 있었다. 더우기 事故時에 外部와 放射線을 遮斷하는 防護壁이 허술하다는 등 여러 가지 나쁜 狀態만 겹쳐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人間은 有史以來 自然으로 부터의 放射線을 받고 있는데, 왜 그것보다 자리수가 작은 放射線事故에 소란을 피우는지? 人間은 自然으로부터 年間 약 100밀리렘의 放射線을 맞고 있다. 이것은 人間에 대하여 生物學的 影響을 數的(線量)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중에서 健康診斷時 100밀리렘 정도의 X線(放射線)을 쬐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研究所나 發電所 같은 放射線管理區域에서 放射線량이 조금 높다고 해서 큰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혹시 自然放射線과 原電에서 나오는 放射線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 科學者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 즉 다르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끝으로, 現在 原子力問題로 贊成과 反對가 對立하고 있고, 서로의 主張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必要한 것은 對立이 아니라 對話일 것이다. 文明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人間끼리 對話가운데 참된 對應策을 찾기를 期待하면서